▶▶ 매일 INDEX

7면
민선9기 시정 목표 '시민주권도시 군산'

전주매일
www.jjmaeil.com

11면
'광치복합문화센터' 신생활거점 안착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음 5월 16일) 제4003호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도 할 수 있다' 믿음만은 남길 것

민선 8기 전북도정 여정 마무리

김관영 도지사 이임식

새 출발 응원 메시지
김 지사, "전북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2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제36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임식에 김관영 도지사가 도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 3층 공연장에서 열린 이임식을 끝으로 민선 8기 4년의 도정 여정을 마무리했다.

행사장은 아쉬움과 감사,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따뜻한 박수로 가득 찼다. 〈관련기사 2면·3면〉

이날 이임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도정 회고, 활동 영상 상영, 감사패 및 꽃다발 전달, 이임사, 직원들의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임식이 열리는 동안 직원들은 물론 참석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마지막에는 "지사님, 응원합니다"라는 힘찬 구호가 공연장을 울리며 김 지사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했다.

임철언 기획조정실장은 도정 회고를 통해 "김관영 지사는 지난 4년 동안 누구보다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며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는 신념으로 전북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며 "도전과 혁신의 정신은 이제 전북의 가장 큰 자산이 됐다"고 평가했다.

민선 8기 전북은 128년 만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었다. 국가 예산 10조원 시대를 열었고,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한 27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바이오·방위산업·재생에너지·피지컬 AI 등 미래산업 기반을 구축했으며,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 선정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도 거뒀다.

영상으로 소개된 지난 4년의 발자취에는 기업인과 체육계, 학부모 등 각 계각층의 감사 메시지가 이어졌다. 이들은 "전북의 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렸다",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을 만들었다", "기업 유치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며 이들은 한결같이 김 지사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직원들을 대표해서 노홍석 행정부지사와 송상재 전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장이 감사패를 전달하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감사패에는 "도전과 혁신의 리더십으로 직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해주었다"며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 준 김관영 도지사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아들 등 가족들이 꽃다발을 전달하는 순간에는 행사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김 지사 부부는 참석자들에게 깊이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임사에서 취임 당시 소개했던 한 청년의 마라톤 이야기를 다시 꺼내며 지난 4년을 되돌아봤다.

그는 "우리는 늦게 출발했지만 멈추지 않았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다시 일어났다"며 "무엇보다 혼자 달리지 않았다. 공직자 여러분과 도민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의 전북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년 동안 확인한 것은 전북에 부족한 것이 능력도, 사람도 아니었다는 사실"이라며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은 '전북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전 정신으로 먼저 뛰어들었기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고, 새만금이 다시 움직였으며, 미래산업과 기업 투자가 이어졌다"며 "이번 도전은 아직 미완이지만 미완은 실패가 아니다. 전북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후배 공직자들에게는 "기업 유치와 미래산업의 모멘텀을 반드시 이어가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며, 민생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펴달라"면서 "전주 하계올림픽과 새만금의 미래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민들에게는 "도지사의 자리에서는 물러나지만, 전북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가 남기고 싶은 것은 성과의 목록이 아니라 '전북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밝혔다.

이임사가 끝나자, 직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고, 일부 직원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직원 대표가 감사의 노래를 선물했고, 참석자들은 손피켓을 높이 들고 "지사님, 응원합니다"를 세 차례 외치며 김 지사의 앞날을 축복했다.

민선 8기 4년 동안 '함께 혁신, 함께 성공'을 기치로 쉼 없이 달려온 김관영 도지사. 그는 도청을 떠나면서도 "전북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전북의 꿈도 멈추지 않는다"는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이만호 기자

NH농협금융, 전북에 NH금융허브 구축한다

NH농협금융지주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맞춰 전북을 두 번째 전략 테마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금융지원에 나선다.

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는 3분기 중 NH-Amundi자산운용 전주사무소를 개소하고, 이를 중심으로 'NH금융허브(가칭)'를 출범해 전북지역 금융지원 체계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남권 항공·해양·방산 종합지원센터에 이은 두 번째 지역특화 금융지원 모델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 중인 전북의 금융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된다.

NH금융허브는 기존 전북지역 농협금융 계열사인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에 자산운용 기능을 추가해 종합 금융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전북의 핵심 전략산업인 농생명과 피지컬 AI, 신재생에너지 분야다. /오상근 기자

"전북 대전환 차질 없도록 최선"

정호윤 민선9기 전북자치도 첫 비서실장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정호윤(57·사진) 전 전북도의회 의원을 민선 9기 첫 비서실장으로 내정했다.

전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정호윤 비서실장 내정자는 시민행동21 사무처장을 맡아 지역 시민사회 활동에 활발히 참여했다.

이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펼쳤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인권담당관도 역임하며 의정과 행정 경험을 쌓았다.

시민사회와 의회, 행정을 두루 경험한 만큼 도정 운영 과정에서 폭넓은 소통과 조정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원택 당선인과 민주화운동 시절부터 뜻을 함께하며 오랜 기간 정치적 활동을 이어온 만큼 도정 운영 전반에서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호윤 내정자는 "비서실장은 도정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리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선 9기 도정이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전북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동물헬스케어 육성 핵심 성과

전북자치도, 전국 최초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지정
익산·정읍 일원 264억 투자… 동물의약품 산업 경쟁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가 지난 17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심의·의결을 거쳐 제11차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고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전북자치도가 추진해 온 동물헬스케어 산업 육성 전략의 핵심 성과로 꼽힌다. 전북은 지난해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에 이어 2년 연속 특구 지정이라는 결실을 거뒀다.

이번 특구는 익산시와 정읍시 일원 3.03㎢ 부지에서 추진된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264억원(국비 58%·지방비 26%·민간 16%)이 투입된다.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이 주관기관을 맡고, 국가독성과학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12개 기업이 참여해 차세대 동물의약품 개발과 규제혁신 실증에 나선다.

특구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동물용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신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규정 실증'이 추진된다. 신기술 기반 동물용 신약에 대한 세부 임상시험 지침이 미비한 만큼,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차세대 신약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고 평가체계를 마련해 신약 개발의 토대를 다진다는 구상이다.

'자가백신 대상 품목 확대 실증'도 병행된다. 현행 자가백신 적용 대상은 3개 질병에 그치지만, 이번 실증으로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돼지인플루엔자(SI),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등 지역 특이 신?변종 병원체로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을지 가늠한다. 성공 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신·변종 병원체에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가 갖춰질 전망이다.

'동물용의약품 독성시험 제출 항목 면제 실증'도 함께 이뤄진다. 동물의 약품의 특성을 반영해 일부 독성시험을 병합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지 따져 중복 시험을 줄이고, 안전성을 담보하면서도 개발기간과 비용을 아끼는 효과를 끌어낸다는 목표다.

도는 이번 특구를 발판으로 동물용 신약 개발과 허가 과정의 규제 개선 기반을 마련하고, 동물의약품 산업 생태계 고도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대하고 있다. 추진 중인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사업, 임상시험센터 구축사업 등과도 연계해 국내 동물헬스케어 산업의 거점 기능을 키워나갈 방침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전북이 갖춘 동물의약품 산업 인프라와 연구역량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